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 대상 공연장 선정 심사평

- 일시 : 2015. 5. 22(금), 14:00~18:00
- 장소 : 아르코미술관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공연화, 김동석, 문원섭, 최성신, 최윤우 (가나다 순)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은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 지원, 운영인력 지원 통한 공연장의 운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우리 공연예술의 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한 심의는 전국 500석 미만 민간공연장(등록 공연장) 중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 스태프)을 선발, 배치하는 공연장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는 총 120개 단체 134개 공연장(과건요청 인력 214명)이 지원 신청하여 공연장의 사업운영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사업 수행 능력(4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76개 단체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100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한 공연장 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공연장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기준 및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신청 자격 중 주요사항인 공연장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미등록 공연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무대예술전문인력(무대기술스태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의 다양성 고려 측면에서 '다양한 공연콘텐츠' 및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보유한 공연장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도 지원대상 공연장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15년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특히 동일 조건일 경우 서울지역 공연장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연장을 우선 고려하였다.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력의 경력개발 및 현장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전국 민간분야 소공연장의 공연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분야의 창작활동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 5. 22

무대예술전문인력 배치 공연장 선정 심의위원 일동